

## 소방헬기 道廳 들러 간부 태우느라 출동 20분 지연 안행부, 재난담당자들 서울로 불러 '화랑훈련' 회의

〈광주·전남·제주 통합방위대세 훈련〉

'세월호 침몰 사고' 당일... 기막힌 행정에 국민들 분노

'세월호 침몰' 당일 안전행정부와 구조기 관들의 무사안일한 근무 행태가 추가로 드러나 국민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세월호 침몰 소식을 듣고 긴급 구조를 위해 출동했던 광주소방헬기는 전남도청에 들러 고위간부를 태우는 바람에 구조활동에 투입되지 못했다. 안전행정부는 초를 다루는 긴박한 순간에 '화랑·충무훈련' 회의를 하자며 침몰지역인 전남도와 광주시, 제주도의 안전·재난 담당 간부공무원들을 서울청사로 불러들였다.

수확여행에 들떠있던 아이들 수백명이 어둡고 차디찬 바닷속에서 공포에 떨고 있을 때 이들을 구조하고 지원해야 할 공무원들은 천군 같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29일 안전행정부와 광주시, 전남도 등에 따르면 세월호 침몰 당일인 지난 16일 출동 지령을 받고 현장으로 향하던 광주소방본부 소속 소방헬기는 전남소방본부의 요청으로 갑자기 방향을 틀어 전남도청에 들렀다가 현장으로 향했다. 이 때문에 침사 현장과 가장 가까웠던 광주소방본부 헬기는 최소 20분 이상 현장에 늦게 도착했고, 구조 타이밍을 놓쳐 현장에 투입되지도 못했다. 당시 전남소방본부측은 전남도 고위간부들을 현장까지 데려다 줄 것을 부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광주소방본부 항공대 소속의 한 조종사는 이날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영양 인근을 지나고 있는데 전남소방본부에서 전남도청을 경유해달라는 무전이 와 전남도청 앞에서 15~17분을 대기한 뒤 (고위간부들) 태우고 현장으로 갔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광주소방헬기는 40여 분 정도

탑승 476명 구조 174명  
실종 97명 사망 205명  
※ 29일 오후 8시 현재

면 가능한 거리를 1시간77분에 만에 도착했고, 현장투입은커녕 전국에서 모여든 17대의 헬기와 함께 팽목항에서 대기하는 신세가 됐다.

같은 날 세월호 침몰 사건 초기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안행부의 무사안일한 근무행태도 추가로 드러났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16일 오후 4시부터 서울청사에서 광주시 안전행정국장, 전남도 비상대책 담당, 제주도 안전총괄기획관(국장급)과 화랑·충무훈련(4월28~5월2일 예정)대책 회의를 열었다. 이들 3개 자치단체는 올해 화랑·충무훈련이 열리는 자치단체다.

이날 오전 세월호 침몰 소식을 접한 이들 자치단체들은 회의연기 의사를 밝혔지만, 안행부는 세월호 사고 지역인 전남도만 회의참가자를 국장급에서 계장(5급)으로 조정해 왔다. 이 때문에 세월호 침몰 사고 초동 지원에 전력을 다해야 할 전남, 광주, 제주의 안전·재난 부서 간부 공무원들은 이날 하루 종일 자리를 비우고 서울에 머무르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다. 안행부는 다음날 화랑·충무 훈련을 7월로 연기한다고 발표했고, 16일 회의도 의미가 없는 셈이 됐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물 속에서 얼마나 춥니...아들아, 사랑해” “이 추운 물속에서 얼마나 춥니. 아들아, 사랑해 ♥♥♥ 빨리 돌아오렴” → “애쁘고 잘생긴 내 아들, 이제 다시는 얼굴을 볼 수 없다는 게... 정말 불효자야.” → “아들아, 오늘이 13일째인 데, 이제 그만 엄마 곁으로 돌아오렴”. 29일 진도군 팽목항 방파제에서 아들이 실종된 한 부부(사친 위)가 매일 노란리본에 아들을 그리워하는 애절한 편지를 써 보논이의 눈시울을 적시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대국민 사과... 국가안전처 신설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세월호 참사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관련기사 5면>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국무회의에서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지 못하고 초동대응과 수습이 미흡했던 데 대해 뒤라 사죄를 드려야 그 아픔과 고통이 잠시라도 위로받을 수 있지 가슴이 아프다"며 "이

번 사고로 많은 고귀한 생명을 잃게 돼 국민 여러분께 죄송스럽고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대형사고에 대해 지휘체계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리실에서 직접 관장하면서 부처 간 업무를 총괄조정하고 지휘하는 가칭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전남지사 경선 내달 10일... 공론조사 50%+ 여론조사 50%

새정치연합, 장흥체육관서

새정치민주연합 전남지사 후보 경선이 다음달 10일 치러진다.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달 10일 오후 2시 장흥체육관에서 6·4 지방선거 전남지사 후보자 경선을 치르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관련기사 7면>

경선방식은 공론조사 선거인단투표 50%, 국민여론조사 50%를 각각 반영한다. 공론조사 선거인단 규모는 1000명으로 정해졌으며, 경선에는 이낙연·주승용 의원, 이석형 전 함평군수가 예비후보로 참여해 3파전을 벌인다. /최현배기자 cki@kwangju.co.kr



24면으로 증면·서체 변경

새로운 광주일보를 만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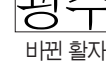
정확한 보도, 균형잡힌 논평으로 지역민의 사랑을 받아온 광주일보가 창사 62주년을 맞아 더욱 알차고 새로워집니다. 다양한 정보와 읽을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발행면수를 기존 매일 20면에서 24면으로 늘리는 증면을 단행합니다. 신문 제목과 본문의 서체를 키우고 판형도 기존 7단에서 6단 체제로 전환합니다. 전통과 권위의 호남 제일 종합일간지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해온 광주일보는 이와 함께 다양한 기획특집과 지면 쇄신으로 독자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합니다.

4개 면 늘려... 지역·문화 뉴스 강화합니다



독자의 다양한 정보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기존 하루 20면 발행하던 것을 24면으로 늘립니다. 이에 따라 주당 발행면수도 100페이지에서 120페이지로 증가해 호남지역 일간지 가운데서는 가장 많은 지면을 발행하게 됩니다. 전남지역 시·군 구석구석의 뉴스와 이슈를 생생하게 전함으로써 지역 밀착형 보도를 강화하는 '전남 인사이트'를 신설해 지방면을 2개에서 3개로 늘리고, 문화 소식도 매일 2개면으로 확대합니다. 광주시민들의 일상과 자치구 소식을 담은 '시티&라이프'는 주 3회, 국제면은 주 2회 발행합니다.

활자 키워 선명도 높이고 판형도 바꿔... 눈이 즐겁습니다



눈의 피로도를 한층 덜어 더 보기 좋고 읽기 쉽도록 새로운 서체도 도입합니다.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본문의 활자는 글꼴의 세면미와 간결성에 주안점을 두고 개선해 선명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제목 활자 또한 서체 굵기 및 획을 조절해 가독성과 통일성을 높였습니다. 판형은 6단 체제를 기본으로 하고 지면의 좌우 여백을 넓혀 기존 7단 체제보다 날렵하고 시원한 지면을 선사합니다. 이에 따라 독자 여러분은 종전보다 세련된 편집의 지면을 편안하게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업그레이드 광주·전남' 캠페인 전개합니다



2015년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와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2015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를 비롯한 대형 국제행사와 아시아문화전당·호남선KTX·나주혁신도시 등 광주·전남 3대 역사(役事)의 완공을 앞두고 시민의식과 광주·전남 위상 제고를 위한 '업그레이드 광주·전남'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친절 국제시민' '선진 민주주민' '풍요로운 남도' 등을 주제로 한 캠페인에는 (사)호남미래포럼과 광주국제행사성공시민협의회, 광주시, 전남도가 함께 합니다.

다양한 국내외 기획특집... 신문이 더욱 풍성해집니다



옛 전남도청 이전으로 공동화현상이 심각한 광주 구도심 일대의 재생을 문화콘텐츠를 중심으로 모색하는 '도시재생, 문화가 해법이다'를 창사특집으로 시작합니다. 대규모 철거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의 역사와 문화, 삶이 어우러진 국내외의 선진 도시재생 사례를 소개합니다.

5·18 34주년을 맞아 광주 정신의 세계화를 위한 기획특집 '5월 정신 세계 민주·인권운동 이끈다'를 비롯한 '관광형 소멸명소가 지역경제 희망이다' '슬픈 동물원' 등 새로운 기획물들이 특집으로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 The C-Class 36개월 무이자 할부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Mercedes-Benz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주) 광주 전시장  
광주광역시 서구 삼부대로 1041번지 / TEL 062)226-0001

경차용인 표준 연비 및 배출량: C200CE 1,796cc, 1,500kg, 주행7단, 복합연비 11.1km/l (도시연비: 9.9km/l, 고속도로연비: 13.9km/l), 4문단, 복합CO2배출량 159g/km • C200CE 1,796cc, 1,500kg, 주행7단, 복합연비 11.1km/l (도시연비: 9.9km/l, 고속도로연비: 13.9km/l), 4문단, 복합CO2배출량 159g/km • C200CE 2,143cc, 1,739kg, 주행7단, 복합연비 13.6km/l (도시연비: 13.3km/l, 고속도로연비: 19.3km/l), 2문단, 복합CO2배출량 125g/km • C200CE 2,143cc, 1,739kg, 주행7단, 복합연비 13.6km/l (도시연비: 13.3km/l, 고속도로연비: 19.3km/l), 2문단, 복합CO2배출량 125g/km • C220CE 4MATIC 2,143cc, 1,700kg, 주행7단, 복합연비 14.8km/l (도시연비: 13.2km/l, 고속도로연비: 20.2km/l), 2문단, 복합CO2배출량 133g/km • C250 AV 2,466cc, 1,629kg, 주행7단, 복합연비 10.0km/l (도시연비: 8.6km/l, 고속도로연비: 12.5km/l), 4문단, 복합CO2배출량 176g/km • C63 AMG 6.0km/l, 1,930kg, 주행7단, 복합연비 6.8km/l (도시연비: 5.8km/l, 고속도로연비: 8.0km/l), 5문단, 복합CO2배출량 284g/km ※본 안내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자행위, 차량적재 및 정비상태 등에 따라 실제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